

【특집】

동학의 이상사회론*

—동학의 종교성과 혁명성을 중심으로—

한자경**

【주제분류】 형이상학, 사회사상

【주요어】 최재우, 최시형, 시천주, 양천주, 동귀일체, 후천개벽

【요약문】 동학은 기본적으로 내적 영성의 자각을 지향하는 종교이다. 전일(全一)의 절대자인 한울이 바로 나이고 우리이며 동시에 우주 자연이라는 것, 일체가 일기(一氣)로 통하여 동귀일체한다는 것을 자각코자 하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이러한 종교성은 일체 생명체를 신령한 영적 존재인 한울로 섬기는 사인여천과 이천식천 나아가 인격의 존엄성과 평등성의 존중이라는 사회적 함의를 가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하의 계층적 지배나 동서의 정치문화적 지배를 배척한다는 점에서 반봉건 반제국의 사회의식이며, 한마디로 평등주의와 자주적 민족주의이다. 따라서 봉건주의와 제국주의의 현실에 대항하여 후천개벽의 시운과 조화를 통해 지상천국을 실현하고자 사회변혁의 혁명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동학의 종교성은 그 혁명성에 대해 단지 외피로서가 아니라 근본이념과 실천목표로서 작용한 것이다.

* 이 논문은 2002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2-074-AS1035).

** 이화여자대학교 인문학부 철학전공

I. 들어가는 말

“탐관오리의 죄목을 조사하여 엄징할 것, 횡포한 부호를 엄징할 것, 외적과 내통하는 자를 엄징할 것,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경작할 것, 노비문서는 불태울 것, 관리 채용은 지별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이것은 봉건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던 조선조 말 동학도들이 제시한 12개조 폐정개혁안 중의 일부이다.¹⁾ 말을 조금 바꾸어보자. “공무원 비리를 철저히 조사 처벌할 것, 재벌의 비리를 파헤쳐 처벌할 것,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을 금할 것, 부동산 투기를 금할 것, 남녀차별적 호적제를 폐지할 것, 자연이나 농물청탁에 의한 인사비리를 조사 처벌할 것.”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시행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외치는 구호이다. 국가관리가 공정하고 가진 자가 횡포를 부리지 못하며 민족자본이 국외로 빼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삶의 터전인 토지가 고루 배분되고 신분차별이나 지역차별이 없는 사회, 이것은 1세기 전 동학도들의 이상사회이었으며, 오늘날 우리들의 이상사회이기도 하다. 결국 동학도가 요구하던 것은 오늘날 까지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오늘날에도 아직 실행되지

1) 12개조 폐정개혁안은 1894년 동학혁명 과정 중 1차 봉기 이후 2차 봉기로 나아가기 전 집강소 설치시기에 제안된 것이다. 그 개혁안을 통해 동학이 지향하는 비판적 사회혁신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6개 조목을 포함하여 12개조를 모두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인과 정부와의 사이에 오래 끌어온 혐오의 감정을 쟁여버리고 모든 행정에 협력할 것, 2.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해내어 일일이 엄징할 것, 3. 횡포한 부호들은 엄징할 것, 4. 부랑한 유림과 양반은 징습할 것, 5. 노비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6. 칠반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 쓰는 평양립은 벗겨버릴 것, 7. 청춘과 부의 재기를 허락할 것, 8. 무명 잡세는 모두 거둬들이지 말 것, 9. 관리의 채용은 지별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10. 외적을 내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11. 공사채는 물론하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돌릴 것, 12. 토지는 평균하게 나누어 경작할 것. 한우근, 『동학농민봉기』, 208쪽 이하에서 재인용.

못한 것을 조선조 말 봉건체제 하에서 요구하며 그 요구의 관철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였다는 것은 동학이 얼마나 급진적 혁명사상 내지 혁명운동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발단을 보면 동학은 본래 교조 최제우의 신비체험에 입각하여 만인의 신령한 영성과 불생불멸의 혼을 일깨우고자 하는 종교이었다. 전일(全一)의 절대자인 한울이 바로 나라는 것, “내 마음이 곧 네 마음”[吾心即汝心]이라는 것, 우주 전체가 일기(一氣)로 통하고 인간 모두가 “동귀일체(同歸一體)”라는 것을 자각하고자 하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나아가 그러한 종교적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내면적 수행으로서 “수심정기(守心正氣)”를 강조하며 일반 신도를 위한 주문과 영부(靈符)를 구비하고 포와 접의 교단체계를 갖춘 종교이다.²⁾

이와 같이 동학은 내적 자각의 종교이며 동시에 1894년 대대적으로 일어난 동학혁명이기도 하다. 종교성과 혁명성, 내적 깨달음과 외적 사회운동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통합은 어떻게 가능하며, 그 통합의 원리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문제삼게 되는 것은

-
- 2) 동학이 수행방법으로 택한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道의 절차”로 설명되고 있다. “널리 많은 사람에게 도를 전코자 하여 도닦는 절차를 정하되 (1) 入道하는 처음에 입도식을 행하게 하니 이는 길이 도를 지키겠다는 맹서이며 (2) 清水를 받들게 하니 이는 기도하는데 표준을 정한 것이오 (3) 주문을 무시로 외우게 하니 長生의 瘡符心을 얻는 방법이오 (4) 무시로 心告를 하게 하니 수심정기를 실행하게 하는 것이오 (5) 의관을 정제하게 하고 길가면서 먹으며 뒷짐지는 버릇을 금하니 행실을 단정히 하게 함이요 (6) 惡肉[개고기] 먹는 것을 금하니 이는 道場의 청결과 人情을 養하게 함이오 (7) 유부녀를 防塞케 하니 음탕을 금함이오 (8) 누워 주문외우기를 금하니 거만한 마음을 다스리게 함이고 (9) 사람 섬기기를 한울같이 하라하니 이는 사람을 한울과 같이 공경하고 사람을 평등으로 알게 함이었다.” 『천도교창건사』, I-21. 청수를 갖춘 기도와 주문을 통한 명상 그리고 마음을 관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중요한 내적 수행과정이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종교적 의식절차로서 매달 삽망에 돼지와 과실을 준비하여 조용한 산 속에 들어가 제단을 마련하여 한울님께 제사하고 주문을 외우며 강신행사를 하여 신이 내리면 교조가 손에 木劍을 잡고 공중으로 뛰어 오르는 劍舞를 행했다. 한우근, 『동학농민봉기』, 131쪽 참조. 『용담유사』 중의 『劍訣』은 검무를 하며 외우는 글로 되어 있다.

흔히 종교성과 혁명성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내적으로 자아의 본질을 깨닫는 것과 외적으로 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길로 간주된다. 전자는 수행자나 구도자의 길로, 후자는 정치가나 사회운동가의 길로 여겨지는 것이다. 물론 구호 상으로 유가(儒家)는 자신의 내면을 닦는 내성(內聖)과 외적 세계를 의롭게 하는 외왕(外王)을 함께 주장하며, 불교 역시 내적 깨달음에 이르는 상구보리(上求菩提)와 뭇 중생을 구제하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을 동시에 지향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마치 그 두 길이 서로 상반되는 이율배반처럼 등장하며, 한쪽으로 치달으면 다른 한쪽이 결핍되는 양상을 보인다. 말하자면 조선시대 유가는 정치권력화하여 외왕의 길로 내닫고, 권력에서 소외된 불교는 개인해탈에만 전념하는 산승불교로 그치고 만 것이다. 그리고 그런 현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흔히 외향적인 정치가는 내면을 등진 권력지향자로 간주되고, 내향적 구도자는 세계를 등진 자기도취자처럼 보인다. 물론 내면과 외면, 개인과 사회, 도덕과 법이 화합되지 않고 둘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현실은 개탄스러운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분리가 극복된 이상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내성의 완성이 곧 외왕의 길이라든가, 하화중생이 곧 상구보리의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상일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둘의 분리만이 확인될 뿐이다.

반면 동학은 종교이면서 동시에 사회혁명이며, 그럼으로써 내면과 외면, 개인과 사회, 도덕과 법의 통합을 이상에서 뿐 아니라 현실에서 구현하려 하였다. 이러한 종교성과 혁명성의 통합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는 이상사회의 실현을 위한 혁명 자체가 동학의 본질적인

3) 이 점이 확연히 밝혀지지 않는 한, 동학에 대한 연구도 종교성과 혁명성 중 어느 하나에 치중하면서 다른 하나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도외시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천도교 축과 해방전후까지 일본측의 연구는 비록 전자가 동학을 순수종교로 후자가 유사종교로 보는 차이를 보이지만 둘 다 종교성에만 치중하여 동학혁명과의 연관을 소홀히 다루었었다. 그에 반해 그 후 사학계의 연구는 주로 사회혁명성에 치중하여 종교를 혁명을 위한 구호수단으로 간주

종교성의 발현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혁명으로 이어지는 동학의 종교적 핵심은 바로 한율사상, 시천주(侍天主)이다. 누구나 한율을 모시는 신령한 영적 존재라는 것, 그 점에서 누구나 동일하다는 동귀일체(同歸一體)의 평등주의인 것이다. 바로 이 평등사상이 모든 사회적인 현상적 차별화에 저항하는 혁명정신을 낳은 것이다.

물론 다른 종교나 사상도 이념적으로는 평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종교나 사상은 이념적 평등성과 더불어 현상적 차별성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이론장치를 갖는다. 유가에서는 보편적 태극[理]의 내재성에 입각하여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현실적 차별성을 리와 구분되는 자연적 기(氣)의 차이로 간주함으로써 귀천, 남녀, 적서 등의 차별대우를 정당화한다. 불교는 보편적 불성(佛性)에 기반한 일체 중생의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 차별성을 개인적 업(業)의 보(報)로 간주하여 차별화된 현실 앞에 굴종하게 만든다. 이에 반해 동학은 기가 우주 전체의 일기(一氣)로 통해 있으며, 업은 사회 전체의 공업(共業)이라는 것을 간파했다고 볼 수 있다. 일체의 차별성은 개인의 자연적 기질이나 전생의 업의 탓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귀결이 아니라, 오히려 인위적으로 부과되고 사회적으로 강제된 부당한 차별임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을 구속하고 살아있는 혼을 질식시키는 차별, 인간의 근본적 평등성을 부정하는 차별의 철

하는 ‘종교외피설’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김상기(1931)는 “최수운의 신교문 창건의 배경은 종교적이라기보다 차라리 서세침입에 대한 호국정신에 있었다”고 말한다(김상기, 『동학과 동학란』, 34쪽). 종교외피설은 박경식(1953)에게서 처음 주장되었으며, 강재언(1954) 역시 그런 관점에서 동학사상과 혁명사상을 이해한다. 동학은 “동학당 지도층의 종교적 개량주의”와 농민 위주의 “동학하층부의 혁명진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며, 전봉준은 동학과 별개의 개혁사상가라는 것이다(한우근, 『동학과 동학란』, 375쪽 참조). 이런 관점이 김용섭에서는 더 극단화되어 동학이념과 동학혁명은 서로 무관한 것이 된다. 그러다가 6,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동학의 이념 자체가 평등주의이며 민족주의로서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된다는 것에 기반하여 둘 간의 내적 연관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김용덕, 「동학사상연구」, 『중앙대학교논문집』 제9권, 1964 참조.

폐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사람은 한율이라 평등이오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인위(人爲)로써
귀천을 분별함은 곧 천의에 어기는 것이니 제군은 일체 귀천의 차별
을 철폐하야 선사(先師)의 뜻을 잊기로 맹서하라.⁴⁾

이와 같이 철저한 인간 평등의 의식이 일체 차별의 철폐를 요구하는 혁명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⁵⁾ 동학에서의 종교성과 혁명성의 관계를 해명하고자 하는 본고는 우선 동학에서의 시천주(侍天主)의 의미를 그 종교성의 핵심으로 밝히도록 한다(제Ⅱ장). 이어 그로부터 귀결되는 인간 평등과 동귀일체에 입각하여 사인여천과 이천식천이 실행되는 양천주(養天主)의 이상사회를 그려본다(제Ⅲ장). 그리고는 그런 이상사회에 반하는 차별적 현실사회 속에서 평등한 이상사회의 실현을 위해 동학도들이 전개한 혁명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제Ⅳ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학의 혁명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글을 마치기로 한다(제Ⅴ장).

4) 『천도교창건사』, Ⅱ-7.

5) 물론 차별의 철폐라는 것이 인간의 상이한 다양성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현상적인 차이, 신분, 남녀, 적서 등의 차이가 각자의 삶의 형태를 규정짓는 본질적 차이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인간의 본질을 무엇으로 간주할 것인가, 즉 현상적이고 경험적인 상이한 규정들 속에서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경험적 차이를 넘어선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구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인간을 형이상학적 존재로 본다면, 경험적인 형이하학적 차이로부터 그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인간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적 차원에서의 인간의 근본적 평등성이 확보된다면, 일체의 차별은 비본질적인 우연적, 인위적 차별이므로 부정되게 된다. 인간을 끊임없이 차별화하고 서열화하기 마련인 사회제도의 틀로부터 구해내는 길은 인간을 자연이나 사회라는 현상차원으로 환원불가능한 형이상학적 본질로 간주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만인의 평등한 형이상학적 본질을 훼손하는 사회경제체제 내지 정치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II. 동학의 종교성: 시천주(侍天主)

동학은 1860년 4월 5일 교조 최제우의 신비체험에서 비롯된 종교로서 그 해를 포덕(布德) 원년으로 삼는다. 최제우는 자신의 신비체험과 더불어 후천개벽(後天開闢)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며, 그 깨달음의 내용을 “강령(降靈)의 글”로 칭하는 21자 주문으로 표현하였다.

지기금지원위대강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至氣今至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⁶⁾

이 주문은 동학사상을 잘 간추린 것으로 그 핵심개념은 시천주(侍天主)이다. 시천주의 시(侍)를 최제우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시(侍)는 안으로 신비한 영이 있고 밖으로 기화가 있으며 세상 사람 누구나 각각 깨달아 간직하는 것을 뜻한다.⁷⁾

안에 ‘신령(神靈)’이 있고 밖에 ‘기화(氣化)’가 있으며, 각자가 깨달아 간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답함으로써 동학의 종교성의 본질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1. 신령의 내재성: 내유신령(內有神靈)

최제우는 자신의 신비체험을 『논학문』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6) 『논학문』, 이를 번역하면 “이제 [동학교단에] 이른 자에게 지극한 기[至氣]의 큰 내림이 있기를 기원하며, 천주를 모시고 필히 조화가 일어나 영세토록 잊지 말고 만사를 깨달을 지어라”가 된다.

7) 『논학문』,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몸이 추워 떨리고 밖으로는 신령과 맞닿는 기운[接靈之氣]이 있고 안으로는 신비로운 가르침[降話之教]이 있었다. 보려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아 마음은 더욱 이상스러웠다.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守心正氣]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물었다. 말하기를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吾心卽汝心]. 사람들이 어찌 이 진리를 알겠는가? 사람들은 천지는 알지만 귀신은 모른다. 귀신이 바로 나다.’⁸⁾

체험의 발단은 신체의 떨림 속에서 외적으로 영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내적으로 가르침, 즉 깨달음을 얻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영과 접하는 기운을 분명히 외적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천 주의 시(侍)를 풀이함에 있어서는 신령이 안에 있다고 말한다. 영과의 맞닿음이 밖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만난 신령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외적으로 영과 접촉하는 기운이 있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내면이라고 생각되는 한계를 차고 나가는 기운이 느껴지며 그 기운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되는 초월적 영과 접촉함을 감지한다는 말이다. 체험의 순간 몸이 떨리고 놀라고 당황하게 되는 것은 나의 일상적인 의식의 한계 내에서는 파악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나의 일상적 의식 너머의 존재, 초월적 존재, 신비한 영이 내게 다가옴을 느낀 것이다. 신비한 영과 맞닿는 신비체험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상세계의 존재근거, 인간과 우주의 근원이 단순히 추상적인 원리나 이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활동적인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형이하의 현상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인 형이상자, 우주의 근원을 성리학은 태극(太極) 또는 무극(無極)이라고 칭하며 그것을 단순한 추상적 원리, 무지(無知)·무위(無爲)의 무심(無心)의 존재로 간주한 데 반해, 최제우는 우주의 근원을 단순한 추상적 원리가 아닌 그 자체 능동적인 정신적 활동성의 영적 존재로 체험한 것이다.⁹⁾

8) 『논학문』, “身多戰寒 外有接靈之氣 內有降話之教 視之不見 聽之不聞 心尚怪
訝 守心正氣 而問 曰‘何爲若然也’ 曰‘吾心卽汝心也 人何知之 知天地 而無知
鬼神 鬼神者吾也.”

이 초월적 영을 최제우는 우리말 표기의 『용담유사』에서는 모두 ‘흔늘님’이라고 칭하며 한문의 『동경대전』에서는 한역하여 ‘천주’ 또는 ‘상제’라고 하였다. ‘흔늘님’은 ‘하나’와 ‘많음’의 의미를 지닌 전일(全一)의 뜻의 ‘한’에다 존경의 뜻의 ‘님’을 더해 만든 것으로 하나님, 하느님, 하늘님 등과 같이 초월적 절대자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칭호이다.¹⁰⁾ 최제우는 이 하늘님을 원시유학에서의 천이나 상제 또는 귀신과 마찬가지라고 보았으며, 서학에서의 천주님과도 상통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최제우의 신비체험의 본질은 그러한 영과의 접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접령의 순간에도 마음을 지키고 기를 바르게 하는 수심정기(守心正氣)를 행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직시하고 그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데에 있다. 즉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는 영의 가르침을 받아 ‘영이 곧 인간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결국 최제우에게 있어 영과 접촉한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일상적인 안과 밖의 경계, 안의 나와 밖의 영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안과 밖, 나와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은 우주적인 초월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나와 분리되지 않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이다. 인간 밖의 외적 초월자가 아니라 그 자체 인간 마음과 다를 바 없는 내적 초월자인 것이다.¹¹⁾

9) 이 점에서 동학은 유학과도 구분된다. 다만 태극을 활동적 주체로 인식한 퇴계의 성리학은 중국 성리학과 달리 심학의 경향을 보이며 이는 동학의 통찰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10) 절대적 전일을 뜻하는 이 ‘한’이 한역으로 韓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桓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桓因, 桓雄의 환이 한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11) 바로 이 점이 동학과 서학을 구분짓는 점이다. 동학은 서학이 신을 대상화하여 외적 실재로 설정하는 데 대해 비판적이다. 최제우는 『도덕가』에서 “천상에 상제님이 옥경대에 계시다고 보는 듯이 말을 하니 음양이치 고사하고 허무지설 아닐런가”라고 말한다. 오지영 역시 시천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령의 내재성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시천주라 함은 세상 사람들이 이른바 저 허공 중에 별개의 신을 두고 이름이 아니오, 사람 자체에自在한 自

이렇게 해서 체험의 첫 순간에는 영과의 접촉이 외적 사건으로 서술되지만, 체험에서 얻은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는 깨달음에 따라 ‘시천주’에서는 신령이 내적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신령의 존재론적 위상뿐 아니라, 그 신령과 동일시되는 인간 마음의 존재론적 위상도 — 현상적 경험적 존재에서 초월적 존재로 — 달리 이해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우주적 초월자가 인간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극대의 무한(절대자/영)이 인간 개체의 극소의 마음으로 수렴하는 것이면서 또 동시에 극소의 인간 마음이 우주를 포괄할 만큼 극대의 우주 크기로, 무한(절대자/영)으로 확장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마음과 우주적 신령이 하나가 되어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며, “천심이 곧 인심[天心卽人心]”이다. 내적으로 자각된 영 자체가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마음이며 그것이 곧 내 마음이기에 이미 나와 너, 안과 밖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결국 인간 마음 자체가 신비한 초월적 영과 하나인 초월적 존재, 신성한 존재이며, 이 점에서 ‘시천주’의 핵심은 바로 ‘인내천’인 것이다.¹²⁾

2. 기화의 활동: 외유기화(外有氣化)

시천주라 함은 안으로 신령이 있고, 밖으로 기화가 있음을 뜻한다. 기화하는 주체는 바로 신령이다. 그렇다면 신령이 기로 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비체험에서 접촉한 신비한 영, 신령은 한울

神을 두고 이름이라”하며, 또 “인내천이라 함은 하느님이 저 허공 속에 있다고 하는 말을 부인한 것이요, 하느님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고 인정한 말씀이다”라고 말한다. 오지영 저, 이장희 교주, 『동학사』, 박영사, 1974, 4쪽과 6쪽.

12) 따라서 최제우의 ‘시천주’는 초월적 신관이고, 손병희의 ‘인내천’은 범신론적 내재 신관이라고 둘을 대비시키는 것은 동학의 핵심을 비켜간 것이 된다. 시천주 내지 인내천은 유학에서의 “인심 즉 도심”, 불교에서의 “중생심 즉 진여심” 또는 『우파니샤드』의 ‘그것이 곧 너이니라’와 마찬가지의 통찰이다. 이렇게 보면 동양에서 신인합일의 경지는 그다지 낮선 것이 아니다.

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산출해내는 존재의 근원이다. 이 우주만물의 산출과정을 최제우는 기화(氣化)로 이해한다.

유학에서는 현상세계를 형성하는 음양 이기(二氣)의 활동의 궁극적 근거를 태극으로 보고, 서학에서는 인간과 우주의 창조자를 신으로 본다. 최제우에게 있어 한울은 태극의 추상성을 넘어선 활동적인 영적 존재이며, 서학적 신의 외재성을 넘어선 내적 초월성의 존재이다. 이 한울은 인간 마음 속의 신령이며 스스로 기화해서 외적인 기의 현상세계를 형성해내는 것이다. 신령의 기화는 내적 정신의 외적 현상화이며,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 정신의 자연화, 영의 육화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신령이 화하는 기(氣)는 어떤 존재인가? 최제우는 주문을 설명하면서 기를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기는 허령(虛靈)하고 아득하여 기가 이르지 않는 사물이 없고 기가 명하지 않는 사물이 없다. 그러나 형태가 있는 듯 하면서도 형용하기 어렵고 들리는 듯 하면서도 보기 어려운 것이니, 이것은 혼원(渾元)의 일기(一氣)이다.¹³⁾

기는 없는 듯 비어있어 막힘이 없으면서도 영적 작용력을 가지는 허령(虛靈)의 존재이며 무한히 멀리 펴져 아득히 창창(蒼蒼)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 기가 온갖 사물에 이르고 온갖 사물을 명한다는 것은 일체 사물이 바로 그 기로 인해 생성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상세계의 개별적 사물들을 기의 취합결과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동학은 유학과 상통한다. 그러나 그렇게 개별화하는 기의 운동성을 신비한 영인 신령, 즉 한울의 작용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유학과 구분된다. 신령의 기화를 통해 도달하는 “혼원(渾元)의 일기(一氣)”는 지극한 기, “지기(至氣)”이며 신령의 기이다. 인간에 내재된 신령의 기화를 통해 우주 만물이 생성되므로, 인간과 신령과 우주가

13) 『논학문』, “氣者 虛靈蒼蒼 無事不涉 無事不命 然而 如形而難狀 如聞而難見 是亦渾元之一氣也。”

결국 하나의 기, 혼원의 일기, 지기로 융합되어 있는 것이다.¹⁴⁾

인간 각자 안에 신령이 있고 일체 현상세계는 그 신령이 기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인간과 신 그리고 현상세계를 하나의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인간 안의 신령의 존재는 인간과 신의 불이(不二)를 말해주며, 신령이 외적인 기화작용을 해서 현상세계를 산출해낸다는 것은 신과 현상세계와의 불이를 말해준다. 결국 일체는 하나이며, 전체 우주가 하나이다. 인간은 안의 신령을 통해 신과 하나이고 밖으로 기화하는 활동을 통해 우주와 하나이다. 천, 지, 인이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동학의 한율님은 신과 인간과 우주의 일체성을 담고 있는 전일(全一)의 존재이다.

3. 한율의 깨달음: 각지불이(各知不移)

한율님, 즉 천주는 개체 안에 신령으로 존재하며 그 신령의 기화활동을 통해 현상세계가 형성된다. 이것이 ‘내유신령’이며 ‘외유기화’이다. 그 천주를 모시는 시천주의 마지막 의미는 내 안의 신령과 그것

14) 최제우의 ‘至氣’의 논의를 근거로 동학의 존재론을 정주의 주기설이나 노장의 존재론과 동일시하는 학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신일철은 “수운의 신유학적 존재론의 구상이 주리설을 멀리하고 주기설에 기울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주리설은 理가 주재하는 상하주종의 질서를 합리화하여 신분차 등의 세계관적 근거가 된다면, 주기설은 理에 의한 주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萬物齊一의 평등적 원리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최제우의 평등사상을 정주학의 주기설과 연결시킨다. 신일철, 「최수운의 역사의식」, 이현희 편,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출판사, 1984, 35쪽 참조. 그러나 성리학에 있어 태극인 리가 본연지성으로서 일체 평등의 근거이며, 기는 오히려 기질지성으로서 만물의 차별화의 원리가 된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동학의 지기는 신령 내지 한율님에서 비롯되는 기운이라는 점에서 정주나 노장의 자연주의적 지기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최동희 역시 바로 이점을 강조하면서 동학의 지기에 대해 “한율에 주목하지 않고 무심히 지나치게 되면 … 어느덧 정주학 또는 노장학 쪽으로 해석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최동희, 「해월의 종교사상에 대한 이해」, 부산예술문화대학 동학연구소 편, 『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 예문서원, 1999, 88쪽.

의 기화활동을 자각하여 아는 것, 즉 “세상 사람 누구나 각각 깨달아 간직하는 것[一世之人 各知不移]”이다. 안다는 것은 내적인 자각과 깨달음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천주(侍天主)는 궁극적으로 각천주(覺天主)이다.¹⁵⁾ 내적인 신령의 존재와 그 신령의 외적인 기화활동이 모든 생명체가 가지는 영적 활동성이라면, 그 내적 활동성을 자기 자신으로 자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인간 안에서 비로소 한울님은 자기 자각에 이른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 안의 신령을 자각함으로써만 인간은 그 본래적 자기인 한울을 지키고 간직할 수 있다. 한울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 불이(不移)이다.

자신 안의 한울을 자각하지 못할 경우, 그 한울의 영성을 자신 아닌 다른 어딘가로 옮겨놓는 이(移)가 발생한다. 자신의 영성을 자각하지 못하기에 내면적 신령의 기화활동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진행되며 결국 의식이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인간은 자신의 신성인 한울을 자신과 무관한 것, 자신 밖의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의 근원인 한울을 무의식적 물질이나 외재적인 신으로 떠올리게 된다!¹⁶⁾ 이것이 바로 자신 안의 영성을 지켜 간직하지 못하고 자신

15) 그래서 손병희는 “시천주”가 궁극적으로 “각천주”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시천주의 侍字는 곧 覺天의 意요 천주의 主字는 我心主의 意니 我心을 覺하면 상제 곧 我心이니라.” 『천도교창건사』, III-103. 이돈화는 내유신령과 외유기화는 사실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명있는 존재 일반의 공통적 특징이라면 오직 인간만이 각지불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 안에 내재하는 신령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바로 이처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는가 없는가, 혼이 깨어있는가 잠들어있는가 하는 生魂과 死魂의 차이인 것이다. “각지불이”라는 知는 곧 覺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사람은 自心이 한울인 것을 直覺하며 기화의 道를 知하며 나아가 제법의 묘용을 知하는데서 인간사회의 향상과 진화가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간과 금수기타자연과의 구별은 내유신령과 외유기화에서는 어떤 정도까지 별로 차이가 없다 할 수 있으나 知 즉 覺에 있어서는 자연과 인간의 분기점이 현저히 달라진 것이니 그럼으로써 시천주의 侍字는 곧 覺의 의라 결론하여도 또한 무방한 것이다.” 『천도교창건사』, I-25.

16) 이처럼 대상적 사유라는 점에서 유물론은 유일신론과 통한다. 서양 중세 기

밖으로 옮겨놓는 ‘이(移)’이다. 자신 안의 한울을 자신의 형이상학적 본질로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 밖의 존재로 외화하는 것이다.

각자 안에 내재되어 일체 존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한울이 인간 밖의 외재적 인격으로 대상화되고 나면 인간 자신에게는 단지 현상적인 개체성만이 남겨지게 된다. 내적 한울의 자각이 자신 안의 형이 상학적인 초월적 자아 내지 진아를 눈뜨게 하는 데 반해, 자신의 그러한 초월성을 부정하고 나면 나와 너, 나와 세계는 각각 서로 분리된 현상으로만 간주된다. 절대자로부터 분리되면, 타인으로부터도 분리되고 우주 자연으로부터도 분리된다. 신으로부터의 소외는 사회로부터의 소외, 우주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자신 안의 신령을 지키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일체로부터의 분리와 소외는 자기 자신을 고립된 자아로 여기게 하며,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 마음인 ‘각자위심(各自爲心)’을 낳는다.

이에 반해 신령의 자각과 그 기화작용의 자각 따라서 나와 한울, 우리와 우주가 하나라는 자각은 각자위심의 이기성을 극복하게 한다. 이와 같이 ‘내유신령’과 ‘외유기화’는 그것들의 자각 속에 자신의 본질을 간직하는 ‘각지불이’로 완성된다. 이 내유신령, 외유기화, 각지불이가 시천주의 시(侍)의 의미이며, 동학 종교성의 핵심이다.

III. 동학적 이상사회: 양천주(養天主)

1. 동귀일체(同歸一體)와 지상천국

내적 신령과 그 신령의 외화활동으로 존재하는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 기화하는 신령을 스스로 자각하여 그것을 자신의 본질

독교의 유일신관이 근세의 경험주의적 유물론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반면 인간 영성의 자각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내지 영지주의는 유심론 내지 관념론으로 이어진다.

로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제우는 동학의 교를 내세우되, 교주를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인간 누구나가 바로 자기 자신, 본래적 자기인 한율님을 믿고 깨달을 것을 강조한다.

나는 도시 믿지 말고 네 몸에 모셨으니	한율님만 믿어서라. 사근취원(捨近取遠) 하단말가! ¹⁷⁾
--------------------------	---

자신 안의 신령을 자각하고 그 신령의 기화로 우주 자연이 생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와 신령과 우주가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곧 한율님을 모신 우리 모두가 하나의 우리, 한율이라는 것,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또한 한율님을 모신 우리가 모여 사는 하나의 올타리, 하나의 올, 한율이라는 것을 뜻한다.

무궁(無窮)히 살펴 내어 무궁한 이 올 속에	무궁히 알았으면 무궁한 내 아닌가! ¹⁸⁾
-----------------------------	---------------------------------------

내적 신령의 자각은 우주만물을 그것의 기화작용으로 알게 하며, 인간 자신을 신성과 우주만물 존재를 품에 안은 무한한 우리, 무궁한 나로 자각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현상적으로는 각각의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하나의 마음, 한율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동학은 우리가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에 속한다는 ‘동귀일체(同歸一體)’를 주장한다.¹⁹⁾ 동귀일체는 자신 안의 한율을 자각함

17) 『교훈가』. 이처럼 우리말로 쓰여진 『용담유사』의 글들은 운율을 맞춰 설해진 것이기에 현대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읊겨 쓰기로 한다.

18) 『홍비가』.

19) 인간 누구나 한율이여 따라서 동귀일체하리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한율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최제우 역시 40년에 신비체험을 통해 비로소 그 자각을 얻게 되었음을 『교훈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율님 하신 말씀 너도 역시 사람이다. 무엇을 알았으며 억조창생 많은 사람, 동귀일체하는 줄을 사십평생 알았던가.” 자신 안의 한율님의 자각이 곧 동귀일체인 하나의 우리, 한율의 자각이며, 우주 혼원 일기의 자각이다. 내 안의 한율의 자각은 ‘신 즉 나’의 깨달음이며, 동귀일체로서의 한 우리, 한율의 자각은

으로써 깨닫게 되는 존재의 동근원성이다. 동귀일체이기에 나와 타인, 나와 자연은 하나로 이해되며, 서로가 각자위심의 경계와 이기성을 벗어나게 된다. 각자위심의 자아가 현상적인 차별적 자아, 경험적 자아, 형이하의 자아라면, 최제우가 한울 및 동귀일체로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차별성을 넘어선 본질적 자아, 형이상의 자아이다.²⁰⁾

이처럼 나를 신령의 한울로, 하나의 우리로 자각하면 그로써 일상적인 나와 타인, 나와 세계와의 분리 내지 경계는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깨달음 이후의 삶은 나이면서 동시에 너이고 자연이고 신이고 우주인 그런 삶이 된다. 각자위심의 소아를 버리고 동귀일체의 대아를 얻은 자가 바로 군자이며, 그 군자의 공동체가 바로 지상신선의 세계이다.

입도(入道)한 세상 사람

그 날부터 군자(君子)되어

‘나 즉 우리’의 자각이며, 그 한울이 기화한 한 울타리로서의 우주 일기의 자각은 ‘우리 즉 자연’의 자각이다.

- 20) 자신을 개별적 고립적 자아로만 간주하면서 인간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마음을 내는 各自爲心 하게 된다. 최제우는 『논학문』에서 “서인들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조리가 없으며, 도무지 천주를 위하는 기미가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대책을 기도할 뿐이다”라고 서인을 특징짓는다. 各自爲心 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한 대책, “自爲身之謀”를 짜내기에 바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러한가를 서학 자체에서 찾는다. 최제우는 동학의 한울님이 서학의 신과 그 도에 있어서 상통하는 면이 있지만, 그 도를 이해하는 理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고 보았는데, 그 가장 큰 차이점을 『논학문』에서 “몸에는 기화의 신이 없고 학에는 천주의 가르침이 없다(身無氣化之神 學無天主之教)”는 것으로 지적한다. 즉 서학에서는 신을 인간 바깥의 존재로 옮겨놓아 대상으로 표상하므로 인간 자신 안에서 스스로 기화하는 신령, 氣化之神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천심이 곧 인심’,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는 천주의 가르침, 한울의 깨달음이 없다는 말이다. 이처럼 각자를 하나로 묶고 일체를 한울로 깨닫게 하는 신령의 자각이 없으므로 결국 각자가 자신을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으로 여기고 자신만의 대책을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점은 최제우가 서학과 서인을 비판하는 것이면서 또 동시에 한울의 정신을 상실해버린 당대의 인간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이다.

무위이화(無爲而化) 될 것이니 지상신선(地上神仙) 네 아니니²¹⁾

동학의 이상사회는 자신 안의 신령을 자각한 인간인 군자들이 모여 사는 세계, 신령이 기화하여 이룩된 세계, 한마디로 한울이 실현되는 사회이다.²²⁾ 그렇다면 이 이상사회에서 인간이 실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 대인(對人)에서의 양천주: 사인여천(事人如天)

개인적 깨달음에 근거한 동학교단이 갖는 사회적 실천성은 최제우를 이은 2대 교주 최시형의 사상 속에 잘 나타난다. 그는 시천주의 깨달음이 우리의 구체적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고 완성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곧 양천주(養天主)이다. 자신 안의 신령의 자각인 시천주로부터 자신 밖의 타인이나 자연우주에서도 그 안에 깃든 한울을 발견하고 그 한울을 모시고 기르는 것이 양천주이다.²³⁾

양천주는 인간의 내적인 초월적 깨달음을 인간 서로간의 윤리성, 사회성, 공동체성, 인간과 자연과의 유대성 등으로 확대하여 실현하는 길이다. 최시형은 타인이나 사회 내지 자연을 향해 열려진 자세로 한울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완성해갈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홀로 내면에 침잠해 있거나 다른 인간과 더불어 천지 만물과 더불어 일체가 일기임을 깨닫고 더불어 기화할 것을 권한다.

21)『교훈가』.

22) 최제우 이전의 조선인들이 생각한 이상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신일철, 「최수운의 역사의식」, 이현희 편,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출판사, 1984, 29쪽 이하 참조.

23) 이런 의미에서 신일철은 최수운의 ‘경천사상’이 최시형에서 경인과 경물로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최시형은 스승의 경천사상을 대인 접물의 경인, 경물 사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고 말한다. 신일철, 「해월 최시형의 侍와 敬의 철학」, 부산예술문화대학 동학연구소 편, 『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 예문서원, 1999, 108쪽.

군자의 덕은 스스로 고립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더불어 함께 크며 함께 자라나는 것이니 제군은 스스로 독선(獨善)하지 말고 사람으로 더불어 같이 기화하기를 도모하라.²⁴⁾

사람과 더불어 기화하는 이 양천주의 길을 최시형은 대인과 접물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한다.

도는 먼저 대인(待人) 접물(接物)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사람을 대하는 끝에서 세상을 기화할 수 있고 물건을 접하는 곳에서 천지자연의 리(理)를 깨달을 수 있나니라. 만약 사람이 있어 이 두 가지 길을 버리고 도를 구한다 하면 이는 허무에 가깝고 실지(實地)를 떠난 것 이니 천만권 법경(法經)을 외운들 무슨 필요가 있으리요.²⁵⁾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최시형은 그의 스승의 가르침을 ‘사람은 한울이다’라는 ‘인내천’과 ‘사람 섬기기를 한울같이 하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교훈으로 해석한다. 사인여천은 서로를 한울로 대함으로써, 서로의 한울을 지키고 길러 이 세계를 한울이 실현되는 이상세계로 만들어 가는 길이다.

나의 스승은 무극대도를 창명하시니 이는 천지 귀신 조화의 근본을 들어 창명하신 것이다. 내가 꿈인들 어찌 선생의 유훈을 잊으리요. 선생이 말씀하시되 ‘사람은 한울이니라. 그러므로 사람 섬기기를 한울같이 하라’하셨다. 내 비록 부인 소아의 말이라도 이를 배우노라.²⁶⁾

자신을 한울로 자각한 사람은 타인 역시 한울임을 알고 그렇게 대하게 된다. 그것이 곧 다른 사람을 한울로 섬기는 사인여천이다. 이는 곧 인간 모두의 평등성을 의미한다. 현상 차원에서 성립하는 출생 신분상의 차별성, 반상, 귀천, 적서, 남녀 등의 차이를 각 인간의 본질적 차이로 간주한다거나 그로부터 차별적 삶의 방식을 강요해서는

24) 『천도교창건사』, II-17.

25) 『천도교창건사』, II-16.

26) 『천도교창건사』, II-37-38.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인여천은 만인의 평등성의 이념을 담고 있다.²⁷⁾ 귀천이나 적서뿐 아니라 장유나 남녀의 차이도 그것이 각인의 인격적 평등성을 손상하는 차별적 대우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어린아이를 성인의 관점에서 미성숙한 자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그 자체로서 이미 독립적 인격이며 한율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라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부모 소유로 생각하여 함부로 대해서는 안된다는 것, 구타 등의 폭력을 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²⁸⁾

일체 모든 사람을 한율로 인정하라. 손이 오거든 한율님이 오셨다
하고 어린 아이를 때리지 말라. 이는 한율님을 치는 것이니라.²⁹⁾

나아가 인내천의 동학은 여성을 남자의 짹이나 수단으로 간주하지 말고 그 자체 독립적 인격, 존엄한 한율로 대하라는 것 등을 말한다. 이는 당시 일반인들의 유가적 생각에 비추면 아주 급진적인 평등주의적 사고이다.³⁰⁾ 이런 평등사상은 동귀일체의 평등성에 입각한 것으로 일체의 차별화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자주성을 내포한다.

-
- 27) 동학에서는 인간의 평등성을 단지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1대 교조 최제우에서부터 몸소 실천하였다. 그는 집에 있던 여자 노비 두 명 중 한 명은 자신의 며느리로 삼고 다른 한 명은 수양딸로 삼았다. 신분적 계층화와 차별화에 저항한 것이다.
 - 28) 최시형의 어린아이존중사상은 동학의 기본사상으로서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한 3대 교조 손병희에게도 이어진다. ‘어린이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파 방정환은 천도교 교인이었으며 손병희의 사위였다.
 - 29) 『천도교창건사』, II-40.
 - 30) 동학의 평등주의는 남녀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하므로 오늘날의 여성학적 관점에서 보아도 부족할 바가 없다. 남녀평등의 문제가 서구 여성학적 관점이 도입되기 훨씬 전에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학의 여성관 및 여성평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현옥, 「동학사상과 여성의 근대화」, 이현희, 「한국여성의 개화를 선도한 동학사상의 힘은 무엇인가?」, 『동학혁명과 민중』, 대광서림, 1985, 김춘성, 「해월 사상의 현대적 의의」, 부산예술문화대학 동학연구소 편, 『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 예문서원, 1999 등을 참조할 것.

3. 접물(接物)에서의 양천주: 이천식천(以天食天)

동학에 따르면 한울로 모시고 존중해야 할 존재는 인간만이 아니다. 우주의 일체 만물이 모두 한울의 기화결과이므로 일체를 한울같이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접물에 있어서의 ‘이천식천’이다.

대개 천지, 귀신, 조화라는 것은 유일한 지기로 생긴 것이며 만물이 또한 지기의 소사(所使)이니 이렇게 보면 하필 사람뿐이 천주를 시(侍)하였으랴. 천지만물이 시천주 아님이 없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다른 물건을 먹음은 곧 이천식천이니라. 그러나 제군은 일생물을 무고히 해하지 말라. 이는 천주를 상함이니 대자대비하여 조화의 길에 순응하라.³¹⁾

천지 자연만물이 모두 신령의 기화의 결과이며 천주를 모신 시천주이므로 인간은 자연을 무고히 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살아남기 위해 자연 생물을 먹을 때에도 생각없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한울의 인간이 한울의 자연물을 먹는다는 ‘이천식천’의 태도로 먹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우주 안에 인간만이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나아가 무생물까지도 모두 한울이 깃든 신령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접물은 우리 도의 거룩한 교화이니 제군은 일초일목이라도 무고히 이를 해치말라. … 이천사천은 천지의 대법이라 물물(物物)이 또한 나의 동포(同胞)이며 물물이 또한 한울의 표현이니 물을 공경함은 한울을 공경함이요 한울을 양(養)하는 것이니 천지신명(天地神明)이 물과 더불어 주이(推移)하는지라. 제군은 물을 식(食)함을 천을 식(食)하는 줄로 알며 인(人)이 래(來)함을 천이 래(來)하는 줄로 알라.³²⁾

이와 같은 ‘여인사천’과 ‘이천식천’으로 대인과 접물의 이치를 밝힌 것은 시천주가 뜻하는 바 인간이 한울이고 우주 만물이 한울의 기화

31) 『천도교 창건사』, II-36.

32) 『천도교 창건사』, II-18.

의 소산이라는 것에 기반한 것이다. 시천주에 입각해서 한울을 사회와 자연 안에서 실현하려는 양천주의 길이다. 인간 사회에 있어 만인을 서로 평등한 자로 공경하는 것이며, 우주 만물에 있어 일개의 생명체, 일개의 자연사물도 소홀히 다루지 않음을 의미한다.³³⁾

이처럼 누구나 서로를 여인사천하고 자연을 이식천식으로 대하는 세상이 바로 동학이 생각하는 이상사회이다. 시천주로서 자신 안의 한울을 자각한 자가 타인이나 자연에 대해서도 한울을 발견하고 존중하는 양천주로서 이상사회를 이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학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사회의 모습일 뿐, 동학이 파악한 현실의 모습은 아니다. 현실은 오히려 그로부터 거리가 멀기에 그 차별적 현실을 개탄하며 그것을 만인이 평등한 이상사회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염원이 동학도의 의식 안에 혁명성을 고취시켰을 것이다.

IV. 동학의 혁명성

1. 역사변천의 원리: 후천개벽(後天開闢)과 무위이화(無爲而化)

최제우는 당시 사회를 평등과 자주성을 자각한 도덕적 군자들의 세계가 아니라 각자위심의 고립적 개인들이 서로 투쟁하는 비도덕적 세계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말세는 곧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말세이기에 새 시대가 새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순간, 그 새로 시작됨을 최제우는 “후천개벽”이라고 했다.³⁴⁾

33) 자연 사물조차도 한울로 모시는 이러한 경물사상의 동학은 현대의 생태학적 위기를 의식한 환경론자들에게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해 동학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물은 인간을 물리적 자연질서로 환원시키려는 자연주의적 사고로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바로 신이라는 인내천의 사고로부터 가능하다는 것, 즉 인간 영성의 자각이 전제되어 한다는 것이다.

34) 말세 뒤에 개벽이 온다는 것은 쇠운이 다하면 성운이 시작된다는 순환적 時

밀세 속에서 영이 새롭게 깨어나고 인간과 한울이 하나라는 메시지가 이 땅에 알려짐으로써 후천개벽은 이미 시작되었다. 최제우는 자신이 신비체험을 가졌던 1860년 4월 5일을 후천개벽의 첫 날로 간주한다.³⁵⁾ 그 후천개벽 이전의 선천 시기를 세단계로 구분하여 『포덕문』에서 설명한다.

저 아득한 옛날부터 봄과 가을이 어김없이 같아들고 계절이 다름없이 제 철을 만났다가 시들어간다. 이것도 한울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함을 밝혀준다. 그러나 예전의 소박한 민중은 비오게 하고 이슬을 내려주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다만 모든 것이 저절로 그렇게 되어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이상 선천 1기). 오제 때부터 성인들이 출현하여 해 달 별 천지같은 자연계의 법칙을 글로 만들어내서 영원히 변치않는 천도의 이법을 규정지어 놓았다. 그리하여 마음의 하나 하나의 움직임과 일의 하나 하나의 성패를 모두 한울님의 뜻에 맡겼다. 이것은 한울님의 뜻을 공경하고 한울님의 질서에 따르기 때문이다(이상 선천 2기). … 그러다가 근래에 온 세상 사람들이 제각기 제 마음대로 하고(各自爲心) 한울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며 한울님의 뜻을 돌보지 않는다. 이것이 언제나 내 마음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이상 선천 3기)³⁶⁾

한울님의 조화가 있으나 범부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던 때가 제1기이며, 그 후 오제(五帝)와 성인이 출현하여 한울을 알아 천명과 천리를 밝혀 도덕을 완성한 시기가 제2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도 아직 선천의 시기로서 한울을 알았어도 그 한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자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은 외적으로 표상되고 도덕도 외향

運관이다. 최제우는 이를 “無往不復”이라고 하며, “하육갑이 지나고 [돌아오는] 상육갑 호시절”이라고 한다. 이처럼 동학에서 후천개벽과 동시적으로 주장되는 순환적 시운관은 따라서 자연필연성의 순환사관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35) 최제우는 자신의 득도의 날을 엄청나게 긴 선천의 세월 뒤 드디어 시작된 후천개벽의 첫날로 간주한다. 그만큼 그는 자신이 얻은 동학의 도를 “萬古無極大道”이며 “今不聞 古不聞 今不比 古不比”(『논학문』)의 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36) 『포덕문』.

적이었다.³⁷⁾ 그로부터 결과된 선천 제3기가 최제우 당시의 사회이며, 이제는 그 도덕마저 빛을 잃고 인간은 한울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전체와 무관한 개체로 이해하여 각자위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선천 말기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다시 한울을 알되 그 한울을 자기 내면에서 자신의 본성으로 자각하는 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우리, 한울을 자각하고, 그 한울을 이 한 울의 세계 안에서 실현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후천개벽을 선포한 동학의 길이다.

이처럼 말세를 인정하는 것은 동학이 서학의 종말론적 말세관이나 불교적 말세사상과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말세라고 할지라도 서학에서처럼 신적인 심판이 있다거나 불교에서처럼 미륵의 하생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선천에서 후천으로의 이행은 인간 자신의 각성, 자신의 내면의 한울의 자각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말세도 이 지상의 삶이 완전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이상세계로 이어지게 되며, 나아가 말세를 끝내고 펼쳐질 이상사회도 서학의 천당이나 불교의 극락처럼 이 세상 너머의 피안에 다른 존재질로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 현실과 이상세계의 대립은 차안의 지상과 피안의 신국처럼 공간적 이원성이 아니라 오히려 선천과 후천, 즉 한울의 자각이 있기 이 전까지의 과거(선천)와 한울의 자각에 입각하여 한울을 실현해가는 현재(후천)라는 시간적 이원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현재를 후천개벽의 시기로 보는 동학도들은 평등한 이상세계를 바로 이 땅 위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현상세계 변화가 신령의 활동이고 그 활동이 기를 움직이는데, 전체 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각된 영에 의한 현실변화는 결국 현상세계 전체에 작용을 미칠 수 있게 된다. 그처럼 현상세계에서

37) 최제우는 『수덕문』에서 유가의 “인의예지”의 도덕에 대해 “수심정기”는 자신이 새로 세운 도덕이라고 강조한다. “인의예지는 앞선 성인들이 가르친 덕 목이지만, 수심정기는 오직 내가 새로 정한 덕이다[仁義禮智 先聖之所教 守心正氣 惟我之更定].” 인의예지보다 수심정기가 더 내면적 자각에 입각했다는 점에서 보다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도덕이라고 볼 수 있다.

의 변화가 현상적인 물리적 질서에 따라서가 아니라 영적인 신령 내지 기의 힘에 따라 야기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 또는 조화(造化)라고 한다. 한울 내지 신령의 작용으로 보는 것이다. 물리적 현상차원에서 보면 아무 행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므로 무위(無爲)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나타나므로 행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 무위이화(無爲而化)이다.

조화(造化)는 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³⁸⁾

깨달은 자의 영적 작용력이 전체 우주의 일기(一氣)를 타고 다른 사람이나 자연에 직접적인 작용력을 미치는 것이 조화이다. 동학교조로서의 최제우는 때때로 이러한 조화를 보여주었다.³⁹⁾ 그런데 최제우

38) 『논학문』, “造化者 無爲而化也.” 동학의 조화 내지 무위이화는 노자적 ‘무위 자연’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무위이화는 노자적인 자연주의적 편연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동희는 “수운의 조화는 정주학파나 노장학파에서 쓰는 조화와는 다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써온 말임에 틀림없다”고 말한다. 최동희, 「해월의 종교사상에 대한 이해」, 81쪽.

39) 최제우는 멀리 떠나있으면서도 삼촌의 사망을 천리안으로 알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사자를 살리기도 하는 등 여러 기적을 행했다. 『천도교창건사』에는 그가 최시형에게 도법을 전하는 순간 보여준 조화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대선사(최제우) 인하야 뮤념양구하시더니 좌우를 몰리치고 홀로 최경상(최시형)을 불러 가까이 앉으라 하시고 눈을 들어 묵견하더니 갈으되 ‘그대 紛膝 平坐하라’하고 다시 갈으되 ‘그대 수족을 이리로 굴신하여보라’함에 말이 마치는 순간에 최경상이 문득 정신이 활활하여지며 입으로 말을 발할 수 없고 수족을 또한 굴신키 불능한지라. 대선사 다시 갈으되 ‘그대 어찌 함이뇨’ 함에 최경상이 그제야 비로소 몸을 동하고 정신이 여구한지라. 최경상이 그 이유를 물은즉 대선사 갈으되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며 나의 기운이 곧 너의 기운인지라. 나의 마음먹은 바 그대에게 미침이니 이는 곧 천지만물이 唯一의 至氣로써 화생한 증거니라. 내 이 증거를 이제 그대에게 체험케 하였으니 그대 이에 순응하라’ 하시더라. … 붓을 들어 守心正氣 네 자를 써서 최경상에게 주며 갈으되 ‘이것이 너의 장래이니 잘 간직하여두라’하시고 이어 갈으되 ‘금일 이후에는 道運이 너에게 돌아가고 道法이 너에게 전하였으니 네 힘써 道中事를 확장하여 나의 뜻한 바를 어기지 말라’하였다.” 『천도교창건사』, I-46.

는 단지 조화를 부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심정기를 통해 그 조화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지를 알고 설명하였다. 그는 자신이 신비체험에서 깨달은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 모든 인간 마음에 적용된다는 것, 우주 만물이 혼원의 일기, 지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러므로 무위이화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최시형 또한 그러한 조화의 힘을 경험한다. 소식이 없어도 스승이 어디 있는지를 신통력으로 알아내고, 기름 반 종지로 21일 밤 등잔을 태우며 글읽기를 계속하기도 하였다. 어린 아이가 끄는 신발의 자국에 천지가 아프게 공명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기의 감응을 통해 일체 존재의 미세한 변화까지도 감지한 것이다.

동학교단에 입문한 교도들은 동학의 가르침을 따라 우주가 분리된 개별사물의 집합이 아니라 심충에서 서로 상통하는 일기(一氣)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 일기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작용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마음, 하나의 우리, 한울이라는 것을 믿었다. 따라서 기도와 염력과 주문이 자연의 물리적 질서를 넘어서서 그 영적 작용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며, 그런 조화의 힘이 개인적 삶을 넘어 사회 전반에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인간들의 정신력과 우주 전반의 기의 힘에 의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따라서 혁명의 순간에도 그들은 정치적 힘이나 물리적 군사력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교조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조화의 힘을 통해 사회변혁이 가능하다고 믿고, 혁명이 성공할 것으로 믿었다. 내적 신령의 힘을 통해 자유롭고 평등한 지상천국의 이상사회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을 어떤 모습으로 파악하였기에 혁명을 시도하게 된 것일까?

2. 사회 현실의 모습

인간 본질을 한울로 간주하는 시천주 정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그 이념에 따라 만인과 만물을 한울로 섬기는 양천주의

사회가 동학인들이 꿈꾼 이상사회이다. 그렇지만 실제 동학이 태동하던 당시 1860년대 조선사회는 그런 이상사회와는 대조적으로 극히 혼란한 시기였다. 평등 대신에 차별이, 민족의 자주성 대신에 그것을 위협하는 외세의 침투가 일반 민중의 삶을 처절한 궁핍과 좌절로 몰아가고 있었다.⁴⁰⁾ 동학은 인간의 신성한 평등성과 자주성을 저버린 그러한 사회정치상황에 분개하며, 그런 현실을 변혁시켜 만인의 평등함과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사람은 한율이라 평등이오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인위(人爲)로써
귀천을 분별함은 곧 천의에 어기는 것이니 제군은 일체 귀천의 차별
을 철폐하여 선사(先師)의 뜻을 잊기로 맹서하라.⁴¹⁾

일체의 차별은 인위적이며 천의를 어기는 것이므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단결하여 그 차별에 맞서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반봉건주의의 선포이다.

나아가 당시 대외적 상황 또한 극히 불안정하고 위태로웠다. 서구 자본주의 열강들의 동아시아 침입으로 인해 조선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최제우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40) 동학의 포교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62에는 홍경래의 난(1811년) 아래 최대규모의 민란인 진주민란이 발생하였으니, 당시 사회가 얼마나 혼란하고 민중이 궁핍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혼히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 배경으로서 조선왕조 봉건체제의 넓은 신분질서, 즉 양반 상놈의 신분차별, 적서차별, 남녀차별 등 온갖 차별이 논해진다. 최제우 자신이 몰락 유생 조암공 최옥이 63세 때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던 한씨 여인을 만나 나은 자식이기에 출생에서부터 이미 서자로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였다. 따라서 그 자신 몰락 유생의 서자로서 사회의 불평등과 불합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는 『도덕가』에서 “우습다 저 사람은 지별이 무엇이게 군자를 비유하며 문벌이 무엇이게 도덕을 의논하뇨”라고 말함으로써 지별이나 문별이 도덕이나 군자와는 무관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로써 양반적 신분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봉건적 신분체제 이외에도 그에 기반한 국가 납세제도인 삼정의 문란과 그 과정에서의 탐관오리들의 수탈 등이 동학난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제시된다.

41) 『천도교창건사』, II-7.

경신년 사월에 온 세상이 어수선하고 민심이 야박하여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였다. 여기에다 또 야릇한 풍설이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어, “서양사람들이 도덕을 닦아서 체득함으로써 그 조화를 부림에 있어서는 못하는 일이 없고 그 쳐부수는 무기에는 당해내는 사람이 없어 중국이 망해 없어진다”는 것이다. 어찌 우리나라도 같은 운명에 빠질 우려가 없겠는가?⁴²⁾

중국이 서구의 세력에 밀리자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는다”라는 두려움, 그 서구세력이 중국을 망하게 하고 결국 조선에까지 미치리라는 것, 따라서 조선은 극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그런 위기감과 불안감이 전국에 팽배해 있었다.⁴³⁾ 이러한 서구에 대한 경계와 저항의식이 최제우로 하여금 자신의 깨달음의 교를 서양에 대해 우리 조선을 지켜줄 정신적 힘이 되어줄 학이라는 의미에서 ‘동학’으로 이름짓게 한 것이다.⁴⁴⁾

42) 『논학문』.

43) 중국은 서구의 강압적 세력에 못 이겨 1842년 8월 불평등한 남경조약을 맺은 후 1850년 태평천국의 난까지 일어났다. 1856년에는 영불연합군이 애로 우호사건을 일으켜 1858년 천진조약을 강요하고 양자강 연안 11개 항구를 개방하게 하였으며, 1860년 10월에는 영불연합군이 북경에 침입하여 중국을 굴복시키고 북경조약을 맺었다. 일본 또한 1854년 미영의 강압에 의해 개항을 하게 되었다.

44) 최제우는 서양무기나 기술문명 등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원동력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것을 기독교 서학이라고 파악하였다.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천하가 멸망하면 입술 없어져 이빨 시리는 탄식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보국 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포덕문』)라고 고뇌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서양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투쟁적인 서학보다 나은 정신력의 종교를 일으켜야 한다고 여겼으며, 그것을 추구하여 결국 동학의 도를 얻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학은 서학을 의식하면서 그에 대립한다는 점에서 나아가 외래의 지배를 배척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동학의 민족주의 정신은 평등주의에 기반하여 어느 민족이나 그 자신의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나갈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구적 민족주의와 구분된다. 서구 민족주의는 처음부터 반평등적인 차별적 종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자기 민족의 영토화장과 경제적 부의 축적을 위해 제국주의적으로 다른 민족을 침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

그러나 외부세력에 대한 저항감은 서양에 대해서 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최제우 당시에는 일본의 조선 세력 침투가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일본에 대한 거부감은 과거의 임진왜란 아래 지속되는 반일감정이었다. 그 반감은 서양에 대해서보다 더 노골적이었으며, 그것은 어쩌면 장차 조선에 미칠 일본의 불길한 세력을 미리 예감한 때문인지도 모른다.

기험(崎險)하다 기험하다 개 같은 왜적놈아 너희 역시 하륙(下陸)해서	아국(我國)운수 기험하다 너희 신명 돌아보라 무슨 은덕 있었던고 ⁴⁵⁾
--	--

이처럼 당시의 사회현실은 우리 자신의 과거인 봉건체제에 의해 각인마다의 현재적 한울로서의 평등성이 부정되고, 외부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해 우리 자신의 자주성이 위협당하고 있는 처지였다.

최제우는 그와 같은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그는 그런 현실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단순한 이념체계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과거 한 때 살아있는 정신을 담고 있었을 요순의 정치나 공자 맹자의 덕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유학이나 불교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생동성을 잃어버린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면 그것으로부터 현실을 변혁할 수 있는 힘을 얻어내기는 힘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아서라. 이 세상은 요순지치(堯舜之治)라도 부족이오, 공맹지덕(孔孟之德)이라도 부족언이라.⁴⁶⁾

기 때문이다. 동학의 민족주의는 어느 민족이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는 평등주의적 주장이라면, 서구 민족주의는 종족간에 우열을 매겨 스스로 우등한 종족으로서 인류 역사 전체를 뒤흔들려고 하는 차별주의적 논리인 것이다.

45) 『안심가』.

46) 『몽중노소문답가』.

유도(儒道) 불도(佛道)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⁴⁷⁾

오히려 현실을 변혁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현재적 영에 눈뜨고 인간의 평등성과 자주성을 분명하게 자각하여 그것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울을 자각하고 그 한울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만인이 평등한 이상사회를 이 세상 너머 폐안에 설정하지 않고 후천개벽을 통한 지상천국으로 설정하였으므로, 그 시운과 조화력에 의해 사회변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 지상 위의 한울의 실현, 지상천국 실현이라는 동학적 이상이 실천적 사회운동으로서의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3. 혁명의 전개와 좌절

동학의 궁극 지향점은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 안의 한울을 깨닫고 우리가 모두 한울인 것을 알아 한울의 지상천국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한울사상과 후천개벽을 알리는 동학이 개인적 신앙이나 집단적 모임 등에 있어 모두 허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학의 평등주의와 자주적 민족주의는 차별적 세계관의 유학자들에게 처음부터 달갑지 않은 것이었다. 그들은 동학을 ‘빈부귀천의 차, 적서(嫡庶)노주(奴主)의 구별, 내외존비의 구별’을 부정한다고 오히려 비판하며, ‘국가의 역적, 유도(儒道)의 난적, 부자(富者)의 강적, 양반의 구적(仇敵)’이라고 비난하였다.⁴⁸⁾ 이렇게 해서 동학은 처음부터 서학과 마찬가지의 사교(邪敎)로 지목되어 탄압받았으며 그 후 개화파세력에 의해 기독교 및 천주교의 신앙자유가 허용된 이후에도 유독 동학만은 계속 박해받았던 것이다.

동학도들은 동학의 신앙자유를 얻기 위해 동학 교조의 명예를 회

47) 『교훈가』.

48) 한우근, 『동학농민봉기』, 211쪽 참조.

복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교조 신원(伸冤)운동을 벌렸다. 1892년부터 시작된 교조신원운동 진행 중 전라 감사 이경식에게 제출된 소장(訴狀)에 보면 종교적 신원운동이 좀더 구체적으로는 서학의 여파로 몰려 지방 관리들의 토색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한 현실적 이유 때문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스승 용담 최선생은 상제(上帝)의 명(命)을 받으시고 천인 합일의 도로써 장차 덕을 천하에 전하고 창생을 익(溺)의 땅에서 광제코저 하시더니 불행히 사학(邪學)의 무(誣)로써 대구에서 순도(殉道)하시니 원통하도다. … 각 읍(邑)의 수령과 재상이 오도를 서학여파로써 지목하여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취하며 학대하여 죽은 자 상한 자가 끊이지 않고 또 항리 부호가 침학(侵虐)하여 집안 망하고 재산 털리지 않은 곳이 없다. … 우리가 성심수도하여 바라는 바는 오직 보국안민과 포덕천하의 원(願)뿐이다.⁴⁹⁾

그러나 사교로 지목한 것은 조정의 일이므로 지방관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답을 듣고는 1893년 초 국왕에게 호소하는 복합(伏閤)상소(上疏)를 거행하였으나, 유생이나 외국관원들의 경계심 만 자극하고 실패하였다. 이를 계기로 동학은 동학을 박해하는 세력이 차별적 세계관의 유학자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민족자주성을 위협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외세임을 자각하고 이때부터 운동의 성격을 바꾸게 되었다.⁵⁰⁾ 즉 지금까지의 종교차원의 운동을 정치적 민중

49) 『천도교 창건사』, II-46-47.

50) 동학은 처음부터 철저한 보국안민사상으로 자주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1866년 프랑스함대 출현(병인양요), 1868년 독일, 프랑스, 미국인 이 함께 한 분묘도굴사건, 1871년 미국함대 출현(신미양요) 등 잦은 충돌로 인해 서세동점의 위기의식이 급증하였다. 일본은 1875년 강화도를 공격하고 다음해 불평등한 강화도조약까지 강요하였으므로 일반일들의 반일감정도 증폭되었다. 개항은 곧 외국경제세력의 침투를 뜻하며, 이는 곧 국내 상인의 시장점거율 하락, 시장질서 및 유통질서의 파괴를 의미했다. 운송업자나 상선 등이 몰락하고 어민이 몰락하며, 미곡이 헐값에 수매되어 일본으로 반출되는 등 일반백성의 삶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런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1889년 방곡령시행도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

운동으로 바꾸었으며, 소청이 아닌 항거형식을 띠게 되었다. 이는 곧 종교운동을 좌절시킨 요인이 단지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그 자체 대내외적인 사회정치적 요인들이기에 그와 동등한 차원에서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학은 접주를 둔 포접의 조직망을 전국적으로 갖고 있었으므로 집회를 위한 전국적 결집력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1893년 3월 보은에 2만여 명이 집결하여 “척왜양(斥倭洋) 창의(倡義)”를 내세우며 20여 일간 항거하였다. 그러나 다시 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산하였다.

신원운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채 오히려 동학도들에 대한 관의 박해만 가중시킬 뿐인 현실을 보며, 최시형은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외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며 내적으로 교단조직을 다지기 위한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보은취회 이후 독자 세력을 형성한 고부지방의 동학접주 전봉준은 1893년 11월 고부 농민들과 더불어 고부군수 조병갑에게 학정 시정을 요구하다가 오히려 곤혹을 치른 후, 기회를 엿보다가 1894년 1월 10일 고부 농민들과 함께 관아를 점령하고 무기고를 뒤져 무장하고 고부농민봉기를 일으켰다. 이러한 전봉준의 봉기소식을 들은 최시형은 “이 또한 시운이니 금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봉기의 정당함을 인정하면서도 “현묘한 기틀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라 … 운이 아직 열리지 않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망령되어 움직이지 말라”고 전했다.

최시형의 동의 없이 고부봉기에서 관군과 대치한 후 전봉준은 무장으로 가서 손화중을 설득하여 전면적 봉기에 돌입하였으며, 이로써 1894년 3월 20일 제1차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관아를 불태우고 무기고를 뒤져 소총 및 농기구로 무장하여 전투를 벌렸는데, 이 저항운동은 곧 삼남일대로 번졌다. 이때 전봉준이 제시한 행동강령은 그들의 목적과 자세를 잘 보여준다.

다. 당시 동학인들의 반일의식은 현실적 이유를 갖고 있다.

1. 사람을 죽이지 말고 재물을 손상하지 말 것
2. 충효를 다하여 제세안민(濟世安民) 할 것
3. 웨이(倭夷)를 축멸하여 성도(聖道)를 밝힐 것
4. 병(兵)을 몰아 서울로 들어가 권귀(權貴)를 진멸할 것⁵¹⁾

1과 2는 비록 혁명을 일으켜도 생명과 질서를 존중하고 도덕을 중시하는 동학적 이념을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며, 권귀를 멸하고자 함은 평등의 실현을 위한 반봉건의 자세를, 웨이를 축멸하고자 함은 민족 자주성의 확립을 위한 반제국의 입장을 말해준다. 이렇게 해서 교조신원의 종교운동은 반봉건, 반제국의 혁명운동으로 바뀌어갔다.

혁명과정에서 수많은 동학교도의 참살소식을 들은 최시형은 1894년 4월 2일 각처의 동학접주들에게 통문을 보내어 집결하여 봉기에 참여할 것을 명하였다.⁵²⁾ 그 후 민비살해사건, 갑오경장 그리고 청일 전쟁 등의 소식을 들으면서 반일감정이 극도로 고조된 동학도들은 다시 각처에서 봉기함으로써 1894년 8월 제2차 혁명이 시작되었다.

51) 한우근, 『동학농민봉기』, 172쪽 재인용.

52) 그러면서도 최시형은 무력 항거 자체에 대해 또는 그 시기나 적절성 등에 대해 적지 않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시형이 원칙적으로 무력 항거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었는지, 혁명발발의 시기에 대해 회의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전봉준을 중심으로 빌발된 혁명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는 대립관점에 있었던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이 점에서 최시형과 전봉준 또는 북접과 남접을 서로 대립되는 둘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고찰은 결국 동학사상과 동학혁명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낳게 된다. 그러나 이미 1차봉기에서부터 남접과 북접, 전봉준과 최시형은 서로 연락되고 있었으며, 최시형은 그때부터도 집결명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이미 최시형은 “호남의 교도들이 타살당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으므로 교도들은 6일 청산 소사전으로 모이라”는 통문을 발하기도 하였다. 『백범일지』에 따르면 이때 최시형은 “호랑이가 물자고 들어오면 가만히 앓아서 죽을까. 참나무 봉등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자”라고 했다고 한다. 박맹수, 「동학농민전쟁기 해월 최시형의 활동」, 부산예술문화대학 동학연구소 편, 『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 예문서원, 1999, 181쪽.

이에 최시형은 북접의 각 포에 명하여 다음과 같은 글로써 남접과 더불어 혁명에 임할 것을 명하였다.

인심이 곧 천심이라. 이는 곧 천운이 이른 것이니 여러분은 신자들을 동원하여 전봉준과 협력하며 선생의 원(冤)을 펴고 우리 도의 큰 뜻을 실현하라.⁵³⁾

이렇게 해서 동학혁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당시 국내의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정치적 갈등상황을 비집고 청군과 함께 우리나라에 군대를 배치한 일본은 오히려 동학혁명을 이 땅에서 민족주의적 동학을 말살시키는 기회로 삼았으며, 우리 관군과 더불어 끝까지 동학도를 수색 몰살하였다. 이렇게 해서 최제우 사후 무수한 난관을 뚫고 그 세력을 확장해온 동학은 다시금 혁명과정에서 수많은 교도를 잃었으며 교주 최시형 또한 몇 년 후 체포되어 처형당하였다.

동학혁명에서 북접 대표역할을 했던 손병희는 혁명에 패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사태를 파악하면서 일본에 의한 합병을 막고자 시도했으나 국내의 친일세력의 변절로 인해 실패했다. 그는 친일적 정치화의 음모로부터 동학을 지켜내기 위해 일단 정치활동과 종교활동을 분리시켜 동학을 순수 종교화하여 ‘천도교’로 개칭하였다.⁵⁴⁾ 그리고 포교 및 교육의 대중적 운동에 치중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삼일운동을 주도하였으나 그 역시 동학의 종교적 이념과 우리 민족의 소망을 전세계에 알리는 역할만 했을 뿐 실제 정치사회적 변혁을 이끌어

53) 『천도교창건사』, II-7.

54) 손병희는 동학혁명 후 숨어서 포교하다가 1901년 일본으로 가서 러일전쟁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한국 내에 大同會를 조직했다가 다시 中立會로 개칭하며 조직력을 확대해나갔다. 그 후 進歩會로 개칭하며 독립의 기초를 닦는데 주력했으나, 일본측의 회유 포섭책에 넘어간 국내의 이용구가 一進會로서 진보회를 통합해버렸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손병희가 政教분리를 시도하면서 ‘천도교’를 선포하고, 일진회 간부들을 퇴출시킴으로써 동학의 자주적 민족주의를 수호하였다.

내지는 못하고 말았다.⁵⁵⁾

이처럼 “천심이 곧 인심”,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는 한율사상에 입각해서 만인의 평등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며 한율의 세계를 이 땅위에 실현시키고자 했던 최재우의 종교사상은 최시형에 이르러 그 한율의 실현을 막는 현실사회에서의 봉건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적 혁명으로 나아갔지만, 그 혁명은 결국 국내 봉건세력과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V. 마치는 말: 아직 끝나지 않은 혁명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에 한율을 간직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마음에 있어 우리가 모두 하나의 우리, 한율이고, 그 한율이 기화하여 형성하는 이 현상세계 역시 하나의 율, 한율이라는 동학의 천지인 일체의 한율 사상은 동서 철학과 종교를 통틀어 그 심오함과 깊이에 있어 그에 견줄만한 것이 없을 정도이다.

또한 내면적 종교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율의 기화하는 힘이 이 세상을 형성하는 기화의 조화력이라는 것에 입각하여 현실 세계 자체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까지 함께 했다는 것도 동학의 의의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종교로서의 동학사상이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한율사상이 만인의 평등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핵심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 현실 세계를 고정된 물질들의 세계로 보지 않고 신령이 실현되는 영적 세계로 간주함으로써 후천개벽의 시운과 조화에 입각해서 사회혁명을 완수하려 한

55) 동학 내지 천도교의 교주는 3대 의암 손병희에게로까지만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공동전수심법’의 방식으로 평등화하여 특정 교주를 두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념적으로는 옳을지 모르지만, 이 현실에서 속세 인간들에게 파고들어 그들을 이끌기에는 너무 미약한 길인지도 모른다. 현실이 이상과 다르다면, 포교의 보다 현실적인 적절한 방편이 장만되어야 할 것이며, 정신 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천도교의 새로운 조직화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것이다.

그러나 갑오년의 동학혁명은 봉건세력과 제국주의 침략자 일본에 의해 실패하고 말았다. 왜 실패한 것인가? 최제우가 생각했던 후천개벽의 시운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직 오만 년 후천개벽기에 있어 너무 이른 시기이기 때문인가? 자신을 신령으로 자각한 정신, 생흔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인가?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외래의 세력들이 너무 강하게 우리를 얹어매고 있었기 때문인가?

그러나 동학혁명의 이상이 아직도 이 현실세계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지상과제로서 유효한 한, 동학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혁명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존재의 근원을 물질로 간주하고 인간의 정신과 행동을 물리 화학적 법칙에 따라 해명하는 유물론의 세계이다. 각자위심의 자본주의의 기반이 되는 속류 유물론적 사회 정치혁명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우리는 그 정신에 따라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세계는 동학의 한울정신에서 보면 인간 내면의 신령이 감추어지고 사혼(死魂)이 지배하며 물(物)이 심(心)을 부리는 전도된 현실, 아직도 말세이다. 동학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신령을 일깨우고 자각시켜 누구나 자신을 한울로 알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의 한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이 지상세계를 모두가 평등한 한울의 세계로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동학혁명은 외적 폭력이나 정치적 투쟁에 앞서 인간 누구나 자기 자신을 신령한 영성의 한울로 자각하며 동귀일체를 깨달아 타인과 우주 일체를 한울로 대하는 정신혁명을 이를 것을 강조한다. 나아가 자신을 한울로 자각하면 그 신령의 기화의 힘에 의해 현실세계 속의 타인의 기(氣)와 마음에도 신비한 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동학혁명에 있어서는 영적 자각력과 정신력 그리고 자각한 정신이 현상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화력을 사회변혁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동학혁명은 아직도 본격화되지 않은 채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혁명, 그래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혁명이다. 결국 한울의 우리 자신이 실현시켜야 할 혁명일 것이다.